

# 신작 강세... 모바일게임 시장 판도 흔들다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돌풍 리니지 꺾고 구글플레이 매출 1위 넥슨 '히트2' 등 기대작 8월 러시

국내 모바일게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신작 게임들이 앱 장터 인기 및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8월에는 또 다른 기대작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어 시장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 '우마무스메' 매출 1위 등극

카카오게임즈가 6월 20일 출시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형제를 제치고 왕좌에 올랐다. 사이게임즈가 개발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는 지난달 26일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1위에 올랐고, 1일 기준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게임은 출시 당일 앱스토어에서도 매출 순위 1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달 9일 누적 100만 다운로드도 돌파했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는 실존하는 경주마의 이름과 영혼을 이어받은 캐릭터를 육성하고, 레이스에서 승리해 꿈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특히, 독창적인 콘셉트와 몰입도 높은 스토리 전개, 뛰어난 3D 그래픽, 자유로운 육성 시스템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매출 순위 상승은 최근 단행한 업데이트 효과로 풀이된다. 카가오게임즈는 지난 달 25일 게임에 육성 우마무스메 2명과 함께 '서포트카드'



25일 국내 출시를 앞둔 '히트2'(큰 사진)와 최근 구글플레이에서 매출 순위 1위에 오른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5종을 추가했다.

7월 28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넷마블의 오픈월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도 순항하고 있다. 출시 당일 7시간 만에 양대 마켓 인기 1위를 기록했고, 앱스토어에선 매출 1위까지 달성했다. 구글플레이에서도 1일 기준 매출 7위에 안착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PC 버전 서비스도 시작했다.

### ● '크로니클' 등도 경쟁 합류

모바일게임의 순위 다툼은 8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대작들이 잇따라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다.

컴투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은 16일 선보인다. '서머너즈 워'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중 최초로 유저가 소환사로 등장해 여러 소환수와 팀을 이뤄 전략 전투를 펼치는 소환형 MMORPG다. 컴투스는 이 게임의 쇼케이스를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이주환 컴투스 대표를 비롯해 개발을 총괄한 이은재 PD 등 개발진들이 출연해 콘텐트와 향후 서비스 방향성을 소개한다.

특히 게임 속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 게임의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해 인터랙티브한 장면을 연출한 버추얼 쇼케이스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히트2'를 25일 국내 출시한다. 원작 '히트'의 세계관을 이어가면서 공성전과 대규모 필드 전투 중심의 대형 MMORPG로 새롭게 태어난 신작이다. 모바일은 물론 PC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넥슨의 개발 전문 통합법인 넥슨게임즈가 출범한 뒤 처음 내놓는 타이틀로,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넥슨은 지난 달 28일 히트2의 캐릭터 선점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오픈 7시간 30분 만에 준비된 서버 35개가 조기 마감돼 수용인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dionys@donga.com

## 천적 T1 꺾은 젠지... 'LCK 서머' 정규리그 1위 보인다

7주차 경기 2-0, 단독 1위 올라서 한경기 저도 T1에 세트 득실 앞서

젠지가 천적 T1을 누르고 단독 1위에 올라섰다.

젠지는 7월 30일 서울 중로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7주차 경기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T1을 2대 0으로 제압했다. 앞선 7월 28일 경기에서도 DRX를 2대 0으로 꺾은 젠지는 이로써 13승 1패를 기록해 T1(12승 2패)을 따돌리고 정규리그 1위에 한 걸음



천적 T1을 꺾고 LCK 서머 단독 1위에 오른 젠지.

사진제공 | LCK

더 다가갔다. 두 팀의 대결은 '매치 오브 더 워크'로 뿔뿔히 찢어질 정도로 큰 기대를 모았다. 실제 경

기도 박빙이었다. 1세트에서 맴을 넓게 활용하며 공세를 펼친 T1을 어렵게 막아낸 젠지는 20분 이후에 벌어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역전승을 따냈다.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2세트에서도 19분 경 벌어진 전투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며 승리를 거뒀다.

젠지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2021년 LCK 서머 정규 리그 1라운드 이후 이어왔던 T1전 7연패를 끊어냈다.

8주차와 9주차에 광동 프릭스, 담원 게이, 프레딧 브리온, KT 롤스터와의 대결을 남겨 두고 있는 젠지는 한 경기를 패하더라도 T1보다 세트 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서머 정규 리그 1위가 유력해졌다.

김명근 기자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크래프톤 정글' 1기 참가자 모집



크래프톤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크래프톤 정글'의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쌓거나 전환을 희망하는 22세 이상 32세 이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60명을 선발한다. 이공계 출신의 비전공자가 주 대상이나 컴퓨터 공학 전공자, 문과생도 지원 가능하다. 30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지원자에게는 사전 학습 자료가 제공된다.

지원자는 2주 동안 자료를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9월 중 입학시험을 치르게 된다. 1기 참가자들은 10월 24일부터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5개월간의 합숙 교육을 시작한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웹서버, 운영체제(OS) 등 현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한 뒤, 팀 프로젝트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산학 지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구성했다. 최종 발표회에는 협력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수료 교육생들의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접수 및 자세한 정보는 크래프톤 정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ow: 리치왕의 분노 클래식' 내달 출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치왕의 분노 클래식'을 9월 27일 출시한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시간을 보

유한 유저는 누구나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 이번 확장팩에는 55레벨부터 시작하는 '죽음의 기사' 영웅 직업이 추가된다. 또 게임 내 여러 성과를 기념하는 업적 시스템의 오리지널 버전은 물론, 행상을 바꾸거나 능력 및 주문의 속성을 변경시키는 능력 강화 문양의 제작을 가능케 하는 주문각인 전문 기술이 도입된다.

## 위메이드, 'KBW 2022' 타이틀 스폰서 참가

위메이드가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2'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한다. KBW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이벤트로, 7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위메이드는 8일부터 이틀 동안 메인 컨퍼런스 'KBW 2022:IMPACT'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 부스를 마련하고 '위믹스' 플랫폼을 알린다.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9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참가한다. 장 대표는 '가상화폐의 궁극적인 유용성: 게임과 메타버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마련된 'NF T 갤러리'에서는 NFT 마켓플레이스 나일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NFT 기반 예술 작품을 공개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2일 (화) 음력: 7월 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b>행운색:</b> 흰색 <b>길방:</b> 서	<b>행운색:</b> 적색 <b>길방:</b> 남	<b>행운색:</b> 검정 <b>길방:</b> 북	<b>행운색:</b> 적색 <b>길방:</b> 남	<b>행운색:</b> 흰색 <b>길방:</b> 서	<b>행운색:</b> 청색 <b>길방:</b> 동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실속은 있는 날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대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가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심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복권당첨이나 유산 상속의 운이다.	현실을 탐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여 갈등이 생기고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이므로 안정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세가 요망 된다. 꿈과 이상이 현실화되기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득이 발생하면 바로 손을 떼어야 한다.	성공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삼가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움직이는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b>행운색:</b> 청색 <b>길방:</b> 동	<b>행운색:</b> 적색 <b>길방:</b> 남	<b>행운색:</b> 검정 <b>길방:</b> 북	<b>행운색:</b> 노랑 <b>길방:</b> 중앙	<b>행운색:</b> 적색 <b>길방:</b> 남	<b>행운색:</b> 흰색 <b>길방:</b> 서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 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돼지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양과 돼지는 삼함으로 서로 기운이 통하는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원숭이띠가 돼지띠를 만나는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탐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날씨			2일(화)		
서울 70/60	인천 70/60	춘천 80/80	26 30	26 30	25 31
강릉 30/60	대전 60/60	전주 60/60	26 33	25 31	26 32
광주 60/60	대구 60/60	부산 60/60	26 31	26 33	26 30
창원 60/60	제주 60/60	지역	25 31	28 34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7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